

## 세계화와 한국의 가정생활문화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본 주제 발표는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가정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제시와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미래 사회의 특징은 세계화와 정보화

현재 우리 시대는 21세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미래의 불투명성”이며, 특히 한국 사회의 가정생활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과학 기술의 발전과 방향이 미래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사회의 특징은 정보화와 세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통신 관련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의 전달을 보다 싸고 빠르게 전파하고 있고, 이에 덧붙여 무역 장벽의 축소, 자본시장의 자유화, 운송수단의 발달 등으로 상품은 물론 서비스 교역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세계적 동조화 현상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가정의 역할이나 모습 등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 2.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실태

그 시대의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자연히 가족의 구조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해체되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전통의 약화나 단절을 겪는 모습인데 한국인에게는 그 속도나 충격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사회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도도한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서 우리의

가족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식생활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식사예절의 상실을 비롯하여 전통조리법의 단절, 각종 의례의 변질 등의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며, 그 외에도 소득 증대라는 측면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가공식품의 다양화, 주거 환경의 편리 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문화의 변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하는 것이 모든 가정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생각된다.

### 3. 세계화와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

가정생활 문화를 보더라도, 자국문화와 외국문화가 뒤섞이는 통합문화가 생활 깊숙히 파고들어와 있는 생활 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잇는 의, 식, 주, 소비생활, 여가생활에서 한국 전통적인 모습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나마 가장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식생활 분야라고 보인다. 왜 그런가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전통음식이 건강 면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성도 큰 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생활도 많이 서구화되고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육하는 작업을 통해 현재의 한식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알리고 교육하는 적극적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진다. 사실 우리에게 우리 것을 빼고 나면 한국인의 실체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는 앞으로 가정학 분야가 꼭 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는 국수주의가 아니라 바로 문화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서구 식품이 유입되더라도 한국인의 문화 체계 내에서 흡수 융합 할 수 있는 문화 용광로를 적극적으로 가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도 우리 가정생활문화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이러한 자세야말로 가정학이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올바른 제 자리를 찾는 과정이며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라고 생각한다.

### 4. 바람직한 가정생활문화를 위한 준비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위한 정답은 없어 보인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는 물질과 개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반면에 정신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나 공동체 의식은 퇴조 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음식의 의미를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라기 보다는 먹는 행위의 의미로 점차 변화되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느끼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고 유교적 가정문화의 가치관 속에 간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노력이 가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당연히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찾는 과정 속에서야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는 항상 고전적이며 집값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사회 변화에 적합한 현실적 교육 수단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